

# 전북도, 국회 예산 법안 심의 前 국회 단계 공략 활동 매진

최정호 정부부지사, 이주영 국회부의장·김춘순 예산정책처장 등 핵심 인사 방문 활동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반영·잼버리 특별법 국회 통과 측면 지원 요청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가 끝난 직후 예산확보 과정에서 과소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및 법안 통과를 위한 본격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이주영 국회의장을 비롯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배용근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핵심 인사를 방문 2019년 국가예산 반영과 잼버리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의 이와 같은 발빠른 국회활동 배경에는 국정감사(10.10~29일)가 마무리 되면 1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 진행 예정에 있어 상임위 심사단계 이전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19년 국가예산 주요 사업에 대

한 측면 지원 요청을 위해,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에게 건의한 내용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공항 수요 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 건의와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지 적격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요구액 전액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 센터 구축)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장비비 50억원 반영 건의, (새만금 SOC구축 6개사업)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

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순환링' 건설, '새만금 상수도 건설', 등 새만금 SOC 핵심 6개사업 국비 6,000억원 반영,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의 필수 기반 시설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국비 50억원과, '변신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계획 용역비 6억원의 국회단계 증액이다.

아울러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이 반영되도록 전했다.

/김진성기자

## 전북 기능인,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사표

2020년 제55회 전국대회 전북에서 개최, 내년부터 준비 계획  
송하진 도지사, "도내 기능인의 숙련기술 널리 알려 달라" 당부

2018년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도 참가선수 대표단이 지난 14일 송하진 도지사(전북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에게 참가 신고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출전선수 대표로 김광영(전주공고 3학년) 선수와 김정민(전주한국전통문화고 2학년) 선수가 참석하였고, 양성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정대주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 등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전라남도 여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올해 53회째로 여수 EXPO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전국에서 50여개 직종에 2,000명의 선수가 참여해서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자동차 차체수리 등 38개 직종에 105명의 선수가 참가할 계획이며, 지난해 10위에 이어 올해 종합성적 8위권 진입이 목표인 바, 2014년 15위, 2015년 11위, 2016년 10위로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경기직종에 따라 오는 2019년 러시아(카잔)에서 개최되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평가전 출전자격이 주어지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직종 산

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선수단 참가선수 대표단에게 "이번 대회를 위해 오랫동안 길고 닳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전북 기능인의 우수한 숙련기술을 널리 알리고, 전북도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회 준비에 매진한 선수 대표와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진성 기자



2018년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도 참가선수 대표단 출전선수 대표로 김광영(전주공고 3학년-목공예) 선수와 김정민(전주한국전통문화고 2학년-요리) 선수, 양성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정대주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 등이 지난 14일 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전북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에게 참가 신고를 했다.

## 南北 24시간 소통체계 구축... "민족 공동 번영 산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구성·운영 합의서 서명  
南 천해성 北 전중수 '소장'... 오후 첫 회의 열여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 채택 140일 만인 14일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열었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 채택 140일 만인 14일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남북 관계자들은 공동연락사무소가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오전 10시30분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등 남북 주요 인사들이 환담장에 모였다. 환담장에서 리 위원장이 "이렇게 사람이 붐비고 서로 오가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오늘 우리가 큰 한 걸음을 걷게 되고 말씀대로 더 좋은 분위기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기 연출했다.

앞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 있는 일"이라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적 대하는 그 누구도 거스르거나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기념사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소통의 창구"라며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을 마주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어려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이날 현관 제막식과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까지 모두 진행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소장인 전중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양측은 차관급 소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을 논의하며 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 ▲당국 간 회담 협의 ▲민간교류지원 ▲상호왕래 편의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개소식 분행식은 오전 10시50분께 시작했다. 북측 리 위원장이 먼저 축하연설을 했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지양분으로 겨우어늘인 얇한 열매"라며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적대 와 대결로 얼어붙었던 분야의 장벽을 북과 남이 마음껏 오가는 열린 문으로 만들어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북남공동연락사무소에는 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응축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회담을

조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철도 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0·4정상선언 이행방안과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보강과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올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한반도에 시작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함께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회담을

남북은 이날 현관 제막식과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까지 모두 진행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소장인 전중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양측은 차관급 소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을 논의하며 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 ▲당국 간 회담 협의 ▲민간교류지원 ▲상호왕래 편의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북은 소장급을 포함해 각각 15~20명의 인원을 파견할 방침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조업체까지 총 3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도 함께 근무한다.

천 차관은 소장을 겸직하며 서울과 개성을 오갈 예정이며,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무처장으로서 상주하며 부소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뉴시스

## 남원에서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회의 가져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14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연석 회의를 갖고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사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승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방안으로, 현재 지방자

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환주 남원시장(자치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분부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 2018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인 2단계 동서화합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조합기구정원 및 직급배분협의,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중장기 발

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은 2008년 설립된 이래 지리산권 통합관광기반 구축, 공동 마케팅 기반 구축, 거점관광시설 투자 등 주요 성과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단체 회장인 이환주 남원시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특별자치단체제도 도입관련 준비, 지역특화사업(계획)사업 공모 대응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